

##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기획안)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추구 집회

얼마 전 일어난 대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뜨거운 교육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간의 권력관계에서 비롯한 폭력 역시,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회에 공론화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학교 현장은 감시와 통제로 얼어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기성교육체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대안은 그동안 기성교육체제에서 누락된 인권과 민주주의가 교육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포문을 여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다. 그러나 이대영 부교육감과 교과부는 이러한 시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였다. 가장 학생 간의 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이며 교육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드리지 않는 부교육감의 재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성소수자 공동행동, 광노현 공동대책위원회 이 세 개 단체는 오는 16일 광화문 원효공원 앞에서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 인권의 학교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 -세부 일정 및 준비상황

	시간	섭외	담당	준비 상황
추모 공연1	18:30~18:35	난다 (해금연주)	조례본부	섭외완료
학교폭력 희생자 증언 3인	18:35~18:50	매미,유리, 수수	성소수자 공동행동	섭외완료
추도사	18:50~19:00	낭독:임보라 목사 작성:유리	성소수자 공동행동	섭외 완료 / 추도사 작성 중
추모 공연2	19:00~19:15	민중가수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 상황 공유	19:15~19:20	사회자	조례본부	준비 중
규탄발언1	19:20~19:25	시의회 측 인사 섭외 중	성소수자 공동행동	
규탄발언2	19:25~19:30	홍세화 님	조례본부	섭외완료
규탄발언3	19:30~19:35	광노현 공대위 측 인사	조례본부	섭외완료
규탄발언4	19:35~19:40	청소년 활동가	조례본부	섭외완료
집회 마무리	19:40~20:00			

퍼포먼스				
------	--	--	--	--

**-준비 할 것**

1. 집회신고 : 조례본부
2. 웹자보 : 성소수자 공동행동
3. 음향 및 조명 : 문화연대
4. 부스 (가판대, 국화꽃, 전시물 등) : 조례본부
5. 현수막 거치대 : 진보신당 서울시당
6. 무대 현수막 : 조례본부
7. 촛불 : 조례본부
8.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서 : 조례본부
9. 홍보 : 페이스북 및 트위터, 운동단체 홍보, 문자 홍보등 다 같이. 준비단위 소속단체 연락. 청소년 서명 연락처로 문자 돌리기.
10. 차량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차량 이용

: 검은빛 & 혜원 (조례본부 청소년 활동가)

**-목표인원** : 200명 내외

**-부스행사 안내**

국화꽃과 추모 게시판을 준비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게 한다. 희생자들의 유서와 언론 기사를 전시하여 함께 읽어볼 수 있게 한다.

**-퍼포먼스 안내**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종료 이후 함께 국화꽃을 들고 교과부나 시의회로 이동해 꽃을 내려놓고 오는 형식의 퍼포먼스 예상 중.

일시 : 2012년 1월 16일 18:30~20:00 (1시간 30분 진행 예상)

장소 : 광화문 원표공원 (동화면세점 옆)

주최 :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광노현 공대위